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7월 FOMC, M7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9일(화) 미국 증시는 미중 관세 유예 연장 기대감에도, 6월 구인건수 부진(744만 vs 컨센 750만), 7월 FOMC 및 MS, 메타 등 M7 실적 관망심리 등으로 하락 마감(다우 -0.5%, S&P500 -0.3%, 나스닥 -0.4%).

현재 트럼프 정부는 EU와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8월 12일 만료 예정이었던 미중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또 러트닉 상무 장관은 한국을 포함해 8월 1일전까지 대부분 국가들과 협상이 만료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주요국들과 잇따른 협상 타결로 관세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 다만, 최근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상승 탄력 둔화가 시사하듯이, 관세 협상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갈수록 소진되고 있는 모습. 주 중반에 들어간 현 시점부터는 7월 FOMC, M7 실적 이벤트로 관심이 집중될 예정.

일단 7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Fed Watch 상 7월 동결확률 95%).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요인인 고용(6월 14.7만 vs 컨센 11.1만)은 우려보다 양호하며, 물가는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8월부터는 기존 보편관세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상호관세(10~15%)가 반영되는 시기이기에, 연준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유인이 생겼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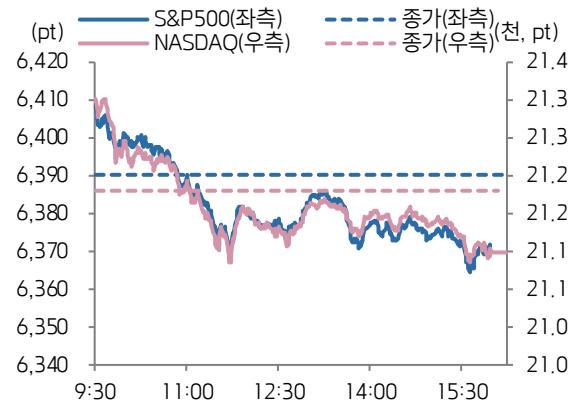
물론 트럼프가 빈번하게 금리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데이터를 중시하는 파월 의장 성향 상 별 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전망. 이보다는 관세에 대한 연준 내 의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7월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확산될 지에 주목. 이는 4.3~4.4% 레벨에서 박스권을 형성 중인 10년물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 그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이 증시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및 소수의견 확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7월 FOMC 이외에도 미국 증시 방향성과 직결된 MS, 메타도 대기하고 있음. Factset 데이터 상 2분기 S&P500의 EPS 증가율은 5%대인 반면, M7의 EPS 증가율은 14%대로 M7 실적 의존도와 기대치는 높은 편이며, 최근 M7 주가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일정부분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번 M7 실적은 향후 가이던스와 CAPEX 상향 이슈가 관건. 더 나아가, MS, 메타 실적은 HBM, 전력기기 등 국내 AI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7월 FOMC보다 증시 전반에 걸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배당소득분리과세 불확실성 등으로 급락 출발했으나, 이후 정책 기대감 및 관세 협상 기대감 재확대 속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상승 마감(코스피 +0.66%, 코스닥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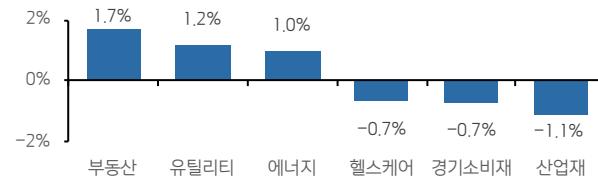
금일에는 미중 관세 유예 연장 소식, IMF의 26년 한국 성장을 상향(1.4% → 1.8%)에도, 한-미 협상 불확실성, 7월 FOMC 및 M7 실적 경계심리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국내도 2분기 실적시즌이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한화솔루션, 롯데정밀화학, GS건설 등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업종 내 종목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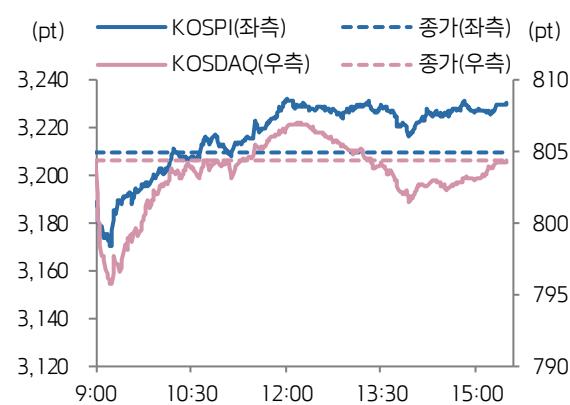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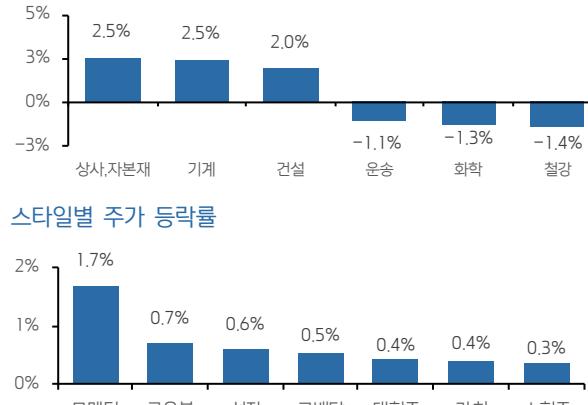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11.27	-1.3%	-15.43%	GM	52.11	-2.51%	-1.62%
마이크로소프트	512.57	+0.01%	+22.07%	일라이릴리	762.95	-5.59%	-0.8%
알파벳	195.75	+1.65%	+3.65%	월마트	98.33	+0.74%	+9.4%
메타	700.00	-2.46%	+19.75%	JP모건	297.04	-0.42%	+25.93%
아마존	231.01	-0.76%	+5.3%	엑손모빌	112.88	+1.29%	+6.85%
테슬라	321.20	-1.35%	-20.46%	세브론	157.03	+0.48%	+10.95%
엔비디아	175.51	-0.7%	+30.72%	제너럴일렉트릭	98.33	+0.7%	+9.4%
브로드컴	297.42	+1.06%	+28.98%	캐터필러	430.05	-0.67%	+20%
AMD	177.44	+2.18%	+46.9%	보잉	226.08	-4.37%	+27.73%
마이크론	111.96	+0.64%	+33.33%	넥스트에라	71.95	+0.9%	+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230.57	+0.66%	+34.64%	USD/KRW	1,389.70	+0.04%	-5.61%
코스피200	435.84	+0.57%	+37.13%	달러 지수	98.91	+0.28%	-8.83%
코스닥	804.45	+0.01%	+18.62%	EUR/USD	1.15	-0.36%	+11.52%
코스닥150	1,354.05	-0.11%	+19.85%	USD/CNH	7.18	-0.02%	-2.14%
S&P500	6,370.86	-0.3%	+8.32%	USD/JPY	148.46	-0.05%	-5.56%
NASDAQ	21,098.29	-0.38%	+9.26%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4,632.99	-0.46%	+4.91%	국고채 3년	2,457	-0.3bp	-13.8bp
VIX	15.98	+6.32%	-7.9%	국고채 10년	2,816	-0.9bp	-5.5bp
러셀2000	2,242.96	-0.61%	+0.57%	미국 국채 2년	3,869	-5.7bp	-37.3bp
필라. 반도체	5,739.79	+0.05%	+15.26%	미국 국채 10년	4,320	-8.9bp	-24.9bp
다우 운송	15,997.02	-2.29%	+0.64%	미국 국채 30년	4,856	-10.2bp	+7.5bp
상해증합	3,609.71	+0.33%	+7.7%	독일 국채 10년	2,708	+1.9bp	+34.1bp
항셍 H	9,145.92	-0.34%	+25.4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1,337.95	+0.55%	+4.09%	WTI	69.21	+3.75%	+0.0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2.51	+3.53%	-2.85%
Eurostoxx50	5,379.20	+0.78%	+9.87%	금	3,381.20	+0.43%	+22.2%
MSCI 전세계 지수	935.80	-0.38%	+11.23%	은	38.08	+0.15%	+30.24%
MSCI DM 지수	4,102.80	-0.4%	+10.65%	구리	560.35	+0.15%	+39.17%
MSCI EM 지수	1,252.31	-0.25%	+16.44%	BDI	2,226.00	-1.37%	+123.27%
MSCI 한국 ETF	73.49	+1.07%	+44.41%	옥수수	411.00	-0.72%	-7.3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9.75	-1.62%	-8.82%
비트코인	117,479.26	-0.48%	+25.36%	대두	1,009.50	-0.2%	-1.54%
이더리움	3,764.25	-0.65%	+12.48%	커피	296.50	-1.72%	-1.8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